

2023. 12. 1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감염병관리과장

송은철

2133-7660

감염병관리팀장

이승찬

2133-7686

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

자활지원과장

김경원

2133-7480

자활지원팀장

기재일

2133-7489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쪽

빈대제로도시...고시원 쪽방촌 현장 전수점검·방제지원 '중점관리' 나선다

- (고시원) 총 4,852개소 관리 전담인력 지정, 전수 현장조사 관리강화
- (쪽방촌) 자체 전수점검 실시, 빈대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방제 지원 추진
- 시, 자치구 5억원 교부, 추가로 2억원 교부해 주거취약시설 방제 지원
- 고시원·쪽방촌 빈대 발생 시 최대 3회, 총 300만원 이내 방제 지원

서울시는 최근 고시원에서 빈대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<주거취약시설 중점관리>에 나선다. 고시원은 전담인력을 지정, 4,852개소를 현장 조사하고, 쪽방촌은 전수점검해 빈대 발견 시 신속한 방제 지원으로 '빈대제로도시' 대책을 강화한다.

○ 11.29 기준 서울시 빈대 발생 건수는 총 89건이며, 이 중 고시원 발생 건수는 39건(44%)이다.

〈고시원, 전담인력이 현장방문 빈대 점검〉

- 시는 자치구에 고시원 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토록하여 고시원 총 4,852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빈대 발생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.
 - 고시원 영업(관리)자와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, 고시원별로 방 1-2개씩을 표본 조사한다. 빈대 서식 가능성이 높은 침대, 매트리스, 장판 등에 빈대, 탈피흔적, 배설물 등이 있는지 오염도를 평가하고 현장 점검일지를 작성한 결과, 의심 시 시설 전체를 집중 점검한다.

- 조사 결과, 빈대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영업(관리)자에게 빈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교육하고, 자율점검표를 배부하여 스스로 빈대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하고, 발생 시 즉시 서울시 발생신고센터, 보건소, 120다산콜을 통해 신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 - 현장 방문하여 개별교육하는 것 외에 고시원 영업(관리)자를 위한 교육동영상 자료를 제작하고 한국고시원협회 및 시·구 누리집에 게시하여 회원들이 자율적 빈대 예방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
 - 또한 거주자를 대상으로 빈대 예방관리 행동수칙 및 빈대 발생 신고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배부하여 상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.

〈쪽방촌, 전수점검 빈대 조기발견 방제지원〉

- 또한, 시는 쪽방촌 대상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빈대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조기 발견과 신속 방제를 통해 빈대 확산을 예방하고자 한다.
 - 11. 21. 기준 서울시 쪽방촌 빈대 발생 건수는 남대문 쪽방촌 1건, 서울역 쪽방촌 2건 총 3건으로 확산세가 양호한 편이나,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특성상 빈대 발생 시 확산의 가능성이 높다.

- 5개 시립 쪽방상담소에서는 빈대 조기발견을 위해 모든 쪽방에 자율 점검표를 배포하여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, 공지문 게시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빈대 예방수칙 및 빈대 신고방법을 안내하고 있다.
- 자치구에서는 전수점검 결과를 토대로 방제계획을 수립하고, 빈대 예방 및 완전 박멸을 위해 철저한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.

<방제지원, 5억원에 이어 2억원 추가 교부>

- 특히 시는 쪽방촌, 고시원 등 주거취약시설의 빈대 방제 지원을 위하여 지난 10일 5억원을 긴급 교부하고, 추가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추가 교부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.
- 쪽방, 고시원에 빈대 발생이 확인되면 빈대 피해 단계에 따라 보건소 자체 방제 또는 민간 전문업체를 통해 최대 3회, 총 300만원 이내로 방제비를 지원하고, 방제 이후로도 10일 간격으로 2회 추가 점검을 실시해 빈대가 박멸되었는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.
- 빈대 발생시설에 대해서는 고시원 관리자가 원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비치하고 있는 진공청소기 등 물리적 빈대 방제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통하여 자율적 방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.
- 지원한도 외에 추가 방제가 필요한 경우,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시한 빈대방제 특별교육을 수료한 전문 방제업체를 안내한다.

<빈대 피해 5단계 확인>

- ▶ 1단계: 매트리스, 침대 프레임 및 머리판
- ▶ 2단계: 침대 주변 가구(협탁, 서랍장 등)
- ▶ 3단계: 장판, 카페트, 걸레받이 등
- ▶ 4단계: 벽면 틈, 콘센트, 스위치, 액자 등
- ▶ 5단계: 천장, 커튼봉, 몰딩 등



-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“빈대는 시민 불편이 커지기 전에 발생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.”며 “특히 주거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를 통한 자율방제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고 말했다.

○ 빈대 예방 행동수칙

구분	수칙내용
예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빈대가 오염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물품(중고 가구, 낡은 책, 옷, 여행가방 등) 함부로 집안으로 옮기지 않기 ▶ 해외 여행자의 옷, 여행용품에 빈대 또는 빈대의 흔적 등을 주의 깊게 확인 ▶ 갈라진 틈, 벽지 등의 집안의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여 빈대 서식처 최소화
청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진공청소기(헤파필터)를 이용하여 수시로 침대 매트리스와 실내공간 청소 ※ 진공청소기 내용물은 비닐봉투에 밀봉하여 즉시 폐기 ▶ 옷과 침구류는 고온 세탁 및 건조 후, 필요시 다림질하여 비닐봉투에 밀폐 보관 ▶ 빈대에 감염된 옷이나 침구는 비닐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폐기 ▶ 여행용 가방은 대형 비닐봉투에 넣고 가정용 에어로졸 살충제를 가방 내·외부에 수차 분사한 후 밀폐 보관(2~3일) ▶ 빈대를 발견한 경우, 테이프로 신속하게 포획하거나 휴지 등을 이용하여 눌러 죽임
방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주거공간 내에는 물리적 방제(진공청소기, 고온스팀기, 세탁건조기 활용)를 우선 적용 다만, 보조적으로 살충제 사용 시는 환경부 승인 제품을 사용하고 사용법 준수

○ 빈대 피해 5단계 확인



빈대피해 5단계

- 1단계 : 한 곳에서만 확인됨; 침대 스프링, 침대 프레임, 매트리스 시점부위, 침대 헤드, 소파 등
- 2단계 : 두 곳에서 확인됨, (예) 침대와 침대 헤드, 근처 테이블이나 서랍장 뒷면
- 3단계 : 걸레받이 틈과 카펫 아래
- 4단계 : 벽의 갈라진 틈, 콘센트 내부
- 5단계 : 방의 벽과 천장(커튼 레일 사이)